

2020년 4월 2일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후쿠오카현 지사로부터 현민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가급적 주말에는 외출을 삼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.

**【현재 상황】**

현재 감염자 수	78명
4/1에 신규로 감염이 확인된 수	32명 (과거 최대)
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	60% 이상

↓ ↓ ↓

-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감염과 감염 확산을 방지할 중요한 시기입니다.
- 현재의 행동이 1주일 뒤, 2주일뒤의 상황을 결정합니다.

**【구체적인 요청 내용】**

- ◆ **이번 주부터 19일까지의 토요일, 일요일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주십시오.**
- ◆ 「밀폐된 곳」, 「사람이 많은 곳」, 「사람이 밀집된 곳」의 3가지 조건이 겹치는 장소는 피해주십시오.
- ◆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기침 예절을 지켜주십시오.
- ◆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, 보건소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주십시오(보건소 연락처 일람을 참고해 주십시오).
- ◆ 병원의 진찰을 받을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먼저 상담해 주십시오.
- ◆ 도쿄, 오사카 등 감염이 확산 중인 대도시에 가급적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.
- ◆ 출국에 관해서는 외무성이 발표한 요청 내용에 따라주십시오.